

News

소상공인 부실채권 조정...금융 민생지원 추경 1.5조 편성

조선비즈

금융위원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프로그램 종료되는 10월부터 최대 3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 조정 나시고 40조원 정책자금 투입 예정
1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취약차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방안 마련... 소상공인 대상 긴급금융구조 실시 계획

DSR 규제에...예담대 반년새 1400억 늘었다

서울경제

4대 은행의 예금담보대출 잔액, 3조 1,473억 8,800만원으로 6개월 만에 1,398억 300만원 증가... 2월-4월 간 감소 추세였다가 5월에 다시 증가로 전환
DSR규제 영향 때문이라는게 업계의 분석... 이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 보유하고 있어도 큰 영향 받지 않아...은행 입장에서도 이자 이익 챙길 수 있어 이득

신한은행도 신용대출 만기 최장 10년으로 확대

매일일보

신한은행, 만기 10년짜리 분할상환 신용대출 상품 내놓아... 대출 기간을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증가... 대출자가 한 달에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 감소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신용대출 최장 만기를 10년으로 확대... DSR 규제 속 대출 가능한 총 한도 늘어나는 효과 존재

정부 '빅테크 금융사' 규제 나선다

국민일보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 빅테크 금융사 규제를 외국 사례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내용 담겨... 핵심은 동일 기능 - 동일 규제 원칙 적용
빅테크 금융사를 통한 송금은 청산하지 않아... 고객 자금 일치하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파악 불가... 그 외 불완전 판매 차단 및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및 적정성 점검도 함께 추진

손보 빅5, 3중고에도 1분기 실적 '선방'...순익 1.2조

서울파이낸스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 올해 1분기에 대면영업 위축·투자익 감소·실손 손해액 급증 등 3중고에도 호실적 거둬... 전년보다 보험영업에서 손익 구조 개선된 덕분
순익 기준 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KB손보로 1년 새 108% 급증... 자동차보험 수익성이 예상보다 선방한 영향이 커... RBC비율은 일제히 하락

다쳐도 안 줘요... DB손보, 운전자보험 가부상 판매 전격 중단

머니S

DB손보와 KB손보, 가족동승자부상치료비 판매 중단... IFRS17에서는 보장기간동안 CSM을 이익으로 인식... 운전자보험 판매 확대를 위해 가부상 추가
다만 당국이 가부상 판매가 도덕적 해이 유발한다고 판단해 손보사들에게 지적... 이에 손보사들은 판매 중단키로... 시기 및 방식은 미정이나 업계 공통적으로 중단 예상

비상장주식시장 잡자...증권사 선점 경쟁

서울경제

피에스엑스, 최근 투자 중개업 인가 받아 스타트업 및 신산업 특화 증권사로 발돋움하겠다고 발표... 비상장주식 시장 놓고 신규 권력 간 한판 승부 예상
기존 증권사들도 비상장주식 전담 조직, 분석 보고서 작성 등 비상장주식 시장에 눈독... 신사업 영역으로 점찍고 선점 경쟁 펼쳐...

尹정부 '개미 보호' 시동...100억원 미만 주식 양도세 면제 추진

아시아투데이

사실상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위해 과세대상을 개별종목 주식 100억원 이상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좁히는 방안 추진
공매도 관련 규제도 강화...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 빌릴때 적용되는 담보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 및 외국인 105% 수준에 맞게 인하...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 검토

Compliance Notice

본 조서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서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